

지오[ジオ] 디자이너와 제조업체의 동침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東京都渋谷区代々木3-32-11
- 분 야 : 디자인
- U R L : <http://www.geo-design.co.jp>

2) 기업 소개

□ 디자인의 본질

- 이 회사는 1990년 창업 이래 줄곧 정보기기와 스쿠터, 정수기 등과 같은 다양한 공산품의 설계 및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왔음
- 그 동안 여러 제품의 디자인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3차원 기술을 도입하여 리드타임(lead time)¹⁾을 단축하는 등의 자신만의 디자인 기법을 축적할 수 있었음
- 디자인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모든 디자인 기법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임
- 그러나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망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물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상품 디자인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

1) 리드타임(lead time) :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,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의 소요 시간(기간)으로 주문을 받거나 생산을 계획하여 완성된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

- 오기야(扇谷)사장은 “디자인의 여러 기법과 노하우가 갖추어진 지금, 이를 활용하여 물건의 본질을 파악한 상품을 제공할 계획” 이라고 함
- 한편 이 회사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현지 법인 공장을 중국 상하이에서 운영하고 있음

□ 자체 개발 상품을 공급

- 지오에서 개발한 자외선 측정기 ‘UV-MONI’ 는 기획에서 디자인 및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이 회사 고유의 제품임
 - 이 제품은 측정 주파수 280~400나노미터의 소형 센서로 자외선을 측정하여 액정 화면에 표시 함
 - 스톱워치 형식으로 저렴하고 소형인 것이 특징임
- 오기야 사장은 회사를 경영하는 한편,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는 NGO²⁾ 법인인 환경 서플러먼트(supplement)연구회의 부이사장을 맡고 있음
 - 자외선을 이용한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것도 이 연구회의 활동이 계기가 됨
 - 오기야 사장은 “환경문제를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” 라며 가령 자외선은 환경문제가 거론되면 자주 듣기는 하지만,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함
 - ‘UV-MONI’ 는 자외선의 양을 시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보다 친밀하게 느껴 달라는 마음을 담아 개발했다고 함

2) NGO : 정부 간의 협정이 아닌,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비정부기구

□ 접이식 에코백을 완성하다

- 비닐봉지 대신에 사용하는 ‘에코백’도 이 회사의 고유 상품인데, ‘에코백이란 과연 무엇인가’라는 본질을 생각하며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함
- 개발자가 실제로 시제품을 이용해 쇼핑을 해 보고, 여러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품을 여러 번 개량했음
- 그 결과 ‘환경을 생각해 비닐봉지 대신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, 무엇보다도 가방에 수납하기 쉬운지 여부와 실용성이 중요하다’는 것을 깨닫고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종이 에코백이 완성되었음
- 디자이너, 기획자, 엔지니어 등 각 전문가가 각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했던 것이 개발제품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주요했다고 판단함
- 지오에서 개발한 ‘에코백’은 하나의 대상을 환경과 사용자의 편리함까지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개발함으로써 탄생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음

□ 의견 조율로 상품을 개발한다

- 사람들이 일상에서 ‘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’라는 것을 목표로 접이식 에코백을 발매한 것은 지난 2007년 6월이었음
- 지금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
-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제품개발 회사로 거듭나며,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회사임
- 특히 각 개발 단계를 모든 전문가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